

雲門

불기 2567(2023)년
여름호
통권 제164호
唐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여름, 가사장삼의 무게가 실감나는 계절. 이를 견뎌낸 자만이 가을의 결실을 거둘지니. / 사미나과 해인
- ▣ 이 순간을 살자,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경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 / 사미나과 인성
- ▣ 덥다는 것은 추운 것도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파도가 친다는 것은 고요함도 있다는 것이다. / 사미나과 정우
- ▣ 징마비로 오랜만에 가득찬 이목소, 개울가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 보니 내 마음도 맹달아 시원하네 / 사집과 삼우
- ▣ 덥고 끈적이는 여름, 마음만은 쾌청하고 뽀송뽀송하길 ^_^ / 사집과 혜석
- ▣ 운문사 사집의 여름: 여름불교학교, 이목소 물놀이,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가는 농작물 / 사집과 공림
- ▣ 무더운 여름, 흐르는 땀방울에 즐거워진다. / 사교과 보명
- ▣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올 여름도 파이팅! / 사교과 덕운
- ▣ 비가 내려요! 짬쪼롬한 노력의 땀방울로 온 도량을 채워봅니다~ / 사교과 선혜
- ▣ 내리는 빗속에 우리의 身, 口, 意 삼업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길 발원합니다 / 사교과 도솔
- ▣ 진흙 속에 핀 연꽃 밝은 햇살에 눈부셔라! / 대교과 정연
- ▣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삼켜버리는 운문인의 열정 / 대교과 천진
- ▣ 어떠한 방해를 해도 물은 고요히 비켜간다. 나의 번뇌, 망상도 비껴가기를… / 대교과 원녕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금강경 사구계의 공덕 병성 |
| 06 | 추모특집 | 故 운산 학장 스님께 보선
故 운산 학장 스님 추모곡 영원, 원경 |
| 10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입지발원立志發願을 다시 생각하면서 송운 |
| 12 | 교수논단 | 頓悟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②
- 知訥의 頓悟修를 중심으로 - 진광 |
| 16 | 학인논단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 중심으로 독해하기 - 진하 |
| 20 | 선배탐방 | 더불어 사는 삶의 힘
- 화합과 소통 - 보선 |
| 24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허공은 벼락에 멍들지 않는다 명주 |
| 26 | 운문, 운문인 | 하운우인夏雲雨人 편집부 |
| 28 | 수행의 두레박 둘 |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현 |
| 30 | 수행의 두레박 셋 | 상상相相 속에 살고 있는 나 혜성 |
| 32 | 외부기고 | 대승의 보살도를 향한 발심의 위대함 안성우 |
| 37 | 차례법문 | 운하항복 진심云何降伏 嘵心 해단향 |
| 40 | 이 한 권의 책 | 상처받지 않는 영혼 태감 |
| 43 | 想 | 定 대겸 |
| 44 | 운문논평 | 비구니 승단의 복원을 위해 편집부 |
| 46 | 운문소식 | |
| 47 | 등불 | 금강경 독송 기도 |



금강경 사구계의 공덕

명성 / 운문사 회주



오늘은 『금강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금강경』 사구계四句偈를 수지독송受持讀誦하는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는 유위법과 무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인 스님들은 들어보았겠지요? 유위법이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생멸법生滅法을 말합니다. 생멸법은 꿈, 허깨비,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찰나찰나 변화하여 다음 순간 다른 것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 눈이 병들어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실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그것을 허공꽃이라 했고, 『금강경』에서는 여동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위법은 생멸법이 아닙니다.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즉 본래 고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없으면 환하게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만약에 모양으로써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살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여래를 볼 수 없다

모양이나 소리로 존재하지 않는 무위법의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금강반야의 세계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생멸법이 아닌 불생불멸법을 알려 주는 계송 한 구절은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꿈속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얻었거나 보시를 했다는 사실과 꿈에서 깨어난 실제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로 된 열쇠를 얻은 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하는가? 이 여름철에 학인 스님들에게 드리는 화두입니다. 잘 참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강경』 사구계를 항상 수지독송하여 그 깊은 가르침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수행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지난 봄철,
운문사승가대학의 학장 운산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인재 불사, 도량 불사에
앞장서서 힘쓰셨던
스님의 수행공덕을 기립니다.

속히 돌아오시어
중생을 구제하소서.



故 운산 학장 스님께

보선 / 대교과(4학년)

학장 스님의 마지막 화엄제자인

저희들의 스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이 닿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학장 스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와 함께 두 손 모으고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구름 운雲, 뵈 산山.

운문 강원의 학인들을 자비로 덮으신 우례와 같은 음성과 엄격하신 가운데

학인들을 다 포용하시고 든든한 벼팀목이 되어주셨던 학장 스님.

수업시간마다 회광반조하라고 손전등을 비춰주시며 따끔한 가르침을 주셨던,

천이백 대중이 들려싸고 있어도 역지여시亦止如是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호통 속에서 학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신 순간조차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학장 스님만의 가르침에 젖어들 수 있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출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항상 보현행원품을 수지독송하고 실천하라 하신
마지막 수업의 간절하셨던 당부가 이제야 마음에 다가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저희를 일깨우고자 온 생명을 다해 제발 깨어나라고,
제발 이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라고 외치시는 학장 스님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 다른 시에 부처님 화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희는 부처님의 정법의 길을 가며 온 세계와 종생이 다하는 날까지
모두를 구제하는 보살이 될 것을 학장 스님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운산 학장 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운산 학장 스님의 속한 사바를 발원드리며
운문사승가대학 제60회 화엄행자 계수정례드립니다.



당신과 보현보살행원을 따라서 故 운산 학장 스님 추모곡

작곡. 영원 / 대교과(4학년)

작사. 원경 / 대교과(4학년)



당신을 공경 찬탄하여
매일 아침 우유 공양을 올리었고

당신을 따라 함께 참회하여
공덕을 따라 기뻐했고

당신께서 화엄경을
설해 주시길 청하였고

오래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신께 배운 저희들의 보현행원력은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겁 동안 끊이지 않으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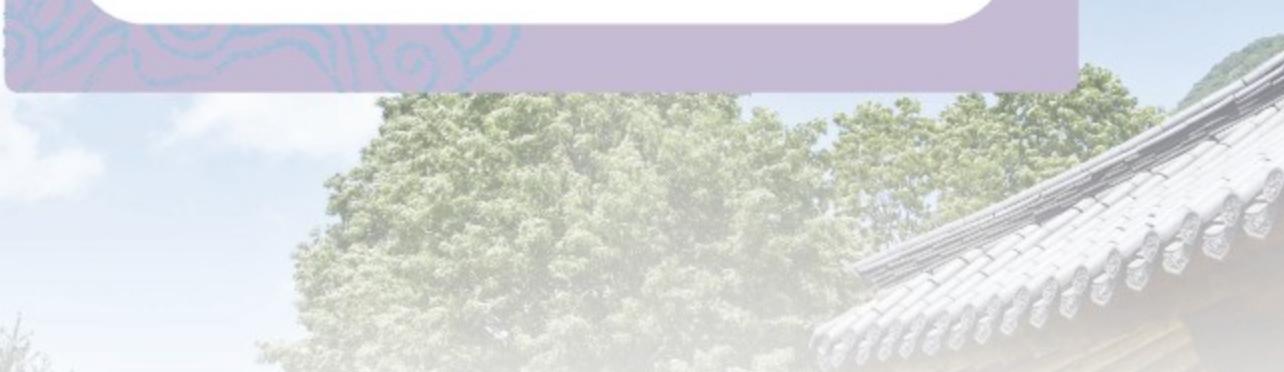
부디 당신께선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부디 당신께선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입지발원立志發願을 다시 생각하면서

송운 / 운문승가대학 부교수



보리수나무 향기가 생멸生滅의 무상함을 느끼는 법계 회상의 대중을 어루만져 주는 초여름 아침이다. 이번 학기에는 편지를 모음인 『서장書狀』과 선禪의 종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선요禪要』에 깃든 도道를 구하는 올바른 발심에 대한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서장』의 첫 번째는 재가자 증시랑이 수행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며 대혜 스님께 보낸 편지이다. 젊어서부터 불법佛法을 알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으나 생활의 부림이 되어 세월을 보냈으며, 어느새 나이가 들어 늙음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만 다른 길에 들어서지 않고 바로 본지本地에 들어서겠습니까?”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본분사本分事’에 대한 사무친 물음이다.

또 이렇게 말한다. “세운 뜻과 일으킨 원력은 진실로 얇은 지견知見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뿐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바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아 얻었던 곳에서 바야흐로 크게 쉴 땅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는 뜻을 세워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인데, 출가 수행자 못지않은 진정한 수행자의 발심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스님은 답장을 보냈다. 이미 세간에서 이루어진 일은 죄가 아닌데 작은 죄로 크게 두려워하니, 이것은 참다운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반야 종지를 깊이 익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허망한 환영이며, 구경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지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난 일을 기억하고 뒷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되, “서원하는 이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선지식을 만나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문득 생사에서 벗어나며, 최상의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하여지이다” 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이라고.

또 『선가귀감』에서는 “출가하여 승僧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몸의 편안함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기 위해서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혜명을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라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붓다께서도 ‘삶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즉, 지금 세상이 안고 있는 괴로움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성문을 나섰으며,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자각自覺하여 괴로움은 사라졌다고 했다. 현상계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니, 연기중도緣起中道의 정견으로,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하는 원력의 삶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저도 장부요, 나도 장부이니 그들 스스로 깨달아 온전한 삶이기를 원했지, 어리석은 중생으로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 세운 뜻은 견고한가? 절실히 늘 함께한다면 그대로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의 삶일 것이다. ☺



頓漸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②

- 知訥의 頓悟漸修를 중심으로 -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頓漸의 개념과 전개
3. 징관과 종밀의 돈점론 비교
4.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성립
5. 나오는 말



1) 징관의 돈점설

징관은 선교를 융통한 화엄종의 제4조로서 돈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 설명된 내용은 지눌이 그의 저서 『절요』에서 징관의 저서 『화엄정원소華嚴貞元疏』를 인용하여 밝힌 것을 쓴 것이다.

깨달음을 상相을 밝히면 해오解悟(명료성상 明了性相)와 증오證悟(심조현극心造玄極)가 있다.

① 돈오점수頓悟漸修 : 심성을 환하게 깨닫고 난 후에 점점 닦고 배워서 계합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깨달음은 해가 비춤에 단박에 만법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고 닦음은 거울을 닦음에 점차 빛나고 밝아지는 것과 같다. - 중하근기中下根機, 해오解悟.

② 점수돈오漸修頓悟 : 처음은 경계를 섭하여 오직 마음뿐이요, 다음은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관하여 후는 마음과 경계가 둘 다 고요함이라. 망념이 나지 아니해서 전후제가 끊어짐(돈오頓悟). 거울을 닦는 것은 수修와 같고, 오悟는 거울의 맑음과 같다. - 중하근기, 증오證悟.

③ 점수점오漸修漸悟 : 닦는 것과 깨닫는 것이 높은 누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점수漸修] 차츰 밟고 높이 올라가면 점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과 같다.[점오漸悟] - 중하근기, 증오.

④ 돈오돈수頓悟頓修 :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닦는다는 것은 3의義에 통한다.

선오후수先悟後修 : 돈오돈수. 확연히 단번에 요달함에 깨달음을 돈오라 하고 불간不看 · 부증不證 · 불수不收 · 불섭不攝하여 광연曠然히 도에 합하는 것은 돈수이다. 마치 털어내지 않고, 빚내지 않아도 거울이 스스로 맑은 것과 같다. - 상근법부上根凡夫, 숙세연숙보살宿世緣熟菩薩, 해오解悟.

선수후오先修後悟 : 돈수돈오. 닦다가 문득 심성을 보는 것이 돈오이니 이것은 증오이다. 곧 닦는 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고 깨달음은 병이 낫는 것과 같다. - 상근법부, 숙세연숙보살, 증오.

수오일시修悟一時 : 무심히 비추는 것을 잊고(돈수) 임운적지함이니(돈오) 곧 정혜定慧를

모두 운용하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무심하지만(돈오에 비유) 만상을 단번에 비추는 것과 같다(돈수에 비유)는 해오와 증오에 통한다. - 상근법부, 숙세연숙보살, 해오·증오

⑤ 본구일체불덕本具一切佛德 일념구족십도만행一念具足十度萬行 : 본래 일체 부처의 덕을 갖춤이 돈頓이요, 일념에 십도만행을 구족함이 수修가 된다. 곧 수修는 마치 대해수大海水를 마시는 것과 같고, 오悟는 마치 백천 가지 맛을 얻는 것과 같다. 해오·증오에 다 통한다.(돈오돈수·돈수돈오의 뜻을 다 포함).¹⁸⁾

정관은 ①②③을 점삼대漸三對에 두고 ④를 돈삼대頓三對에 ⑤를 별일대別一對에 두었다.

2) 종밀의 돈점설

종밀의 『도서』의 내용을 이끌어서 설명하겠다.

① 점수돈오漸修頓悟 : 마치 나무를 벨 때 여러 번 찍은 뒤에 일시에 담박 넘어지는 것과 같다.(단장斷障의 비유) 먼 변방에서 도성에 갈 때 여러 날을 걸려 걷다가 성문에 들어가는 날은 단번에 다다름과 같다.(성덕成德의 비유) - 중하근기, 선수후오, 증오.

② 돈수점오頓修漸悟 : 거울을 닦을 때 일시에 닦으나 티끌은 점점 없어져 깨끗해지고 밝은 상이 점점 나타나는 것과 같다.(단장) 활쏘기를 배울 때 화살마다 과녁에 맞추려고 하지만 오래

익힌 뒤에야 비로소 적중하듯이, 마음을 다잡아 돈수하지만 공행功行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 것과 같다.(발보리심) - 중하근기, 선수후오, 증오.

③ 점수점오漸修漸悟 : 불성이 원만함을 믿으나 오히려 업혹業惑에 덮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거울의 먼지를 털어 버려 점점 심성心性을 깨달음. 마치 9층의 누대에 올라가는 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높이 오를수록 보는 경계가 점점 멀리까지 드러나는 것과 같다.(성덕成德) 거울을 닦음에 점점 빛나고 차차 밝아지는 것과 같다. - 중하근기, 선수후오, 증오.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 해가 단번에 나오지만 서리와 이슬은 차츰 차츰 녹는 것과 같다.(단장) 어린아이를 낳음에 사지와 육근을 갖추었지만 점점 성장하는 것과 같다.(성덕) - 상근법부, 선오후수(무념수와 판사수를 다 갖춤), 해오.

⑤ 돈오돈수頓悟頓修 : 일문천오一聞千悟하고 대총지大總持를 얻어서 일념불생一念不生하고 전후제前後際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 - 상상근기, 연숙보살, 해오.

⑥ 돈수돈오頓修頓悟 : 증證과 해解는 무이상無二相이다. 모든 연緣을 단박에 끊음을 인하여 심지心地가 환히 열려서 근성根性과 욕락欲樂이 수승한 것이다. - 상상근기, 연숙보살, 증오.

⑦ 수오일시修悟一時 : 무상無相으로 수修를 삼고 분명分明함으로 오悟를 삼는다. 마치 큰 꿈을 깨는데 단박 꿈을 깨는 것과 같다. - 상상근기, 연숙보살, 증오.

18) 「절요」, 法輪出版社, pp. 45~48 참조.

종밀은 스승인 징관의 돈점설을 이어서 당시 선과 교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불교계를 회통하기 위해 자신의 돈점관을 다시 정립하였다. 정定이 없는 혜慧는 광혜狂慧이며, 혜가 없는 정은 우정愚定이니 정만 치우쳐 닦으면 무명을 증장하고 혜만 치우쳐 닦으면 사견을 증장하므로 정혜定慧를 둘 다 운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¹⁹⁾

종밀은 ④ 돈오점수를 별일대別一對에 두고, ①②③은 점삼대漸三對, ⑤⑥⑦은 돈삼대頓三對로 두었다. 양사의 돈점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다음 호 도표 참조).

첫째, 돈오점수 의의와 중시되는 비중이 다르다. 징관은 돈오점수를 '심성心性을 환히 깨닫고 후에 차츰 수학해서 거기에 계합하게 하는 것'이며, 점수漸修란 '거울을 닦음에 점차 빛나고 밝아지는 것과 같다'고 하여 거울을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또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서는 '마치 구충의 누대를 보는 것은 단박에 볼 수 있으나, 계단을 밟은 후에 올라가게 됨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구충대에 오름은 돈견頓見만으로는 안 되며 계단을 하나 하나 밟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즉 심즉불心即佛이라는 것을 돈요頓了하나 깨달은 후에 공功을 쌓고 만행을 두루 닦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오점수를 해오解悟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종밀은 이 해오인 돈오점수를 강조하여 거듭 설하고 있다. 즉 돈오점수를 해오라 한 것은 '자심自心이 본래 청정하여 원래 번뇌가 없으며 무루지성無漏智性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여 심즉불心即佛이라, 성상性上에 항사공덕恒沙功德을 갖춘 것을 단번에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후의 점수는 공행功行이 원만함이니, 이것이 최상승선最上乘禪이요, 여래청정선如來清淨禪이며,

달마문하에 상전相傳하는 선禪도 바로 이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자라면서 지기志氣가 점점 서고, 본래 귀인貴人인 출안 천인天人이 예악禮樂을 점점 익혀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자라면서 공능功能을 익힌 후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공능을 익히며 성장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종밀은 깨닫지 못하고 닦음을 진수眞修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양사兩師의 견해에 대하여 지눌은 『절요』에서 돈오점수의 명목은 같으나 뜻은 온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기私記를 붙이고 있다.

청량은 깨달음으로써 닦음을 쫓아 점문에 세우고, 규봉은 닦음으로써 깨달음을 쫓아 돈문에 세우니, 각각 지취가 있어서 둘이 서로 방해롭지 않다.²⁰⁾

또한 지눌은 양사의 돈오점수설에 대하여 "깨달음이 만약 철오徹悟라면 어찌 점수漸修에 막히며 닦음이 만일 진수眞修라면 어찌 돈오頓悟를 여의겠는가. 그러므로 글을 여의고 뜻만 취하여 명언名言에 막하지 않는 것이 긴요하다²¹⁾라며 회통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밀의 점수漸修는 그 경지가 징관의 돈수頓修와 같으며, 원수圓修 · 원점圓漸으로서 이타행利他行이라고 규정한 지눌 역시 종밀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둘째, 돈오돈수의 의미와 위상이 다르다. 징관의 돈오돈수는 3의義(돈오돈수 · 돈수돈오 · 수오일시修悟一時)가 있는데 선오후수先悟後修는 확연돈요廓然頓了 후 불간不看 · 부중不證하

고 광연합도曠然合道함으로써 닦음을 삼는다. 이것은 지눌이 규봉의 세운 바 돈오점수 중 근본무념根本無念으로 닦는 무념수無念修²²⁾와 같고, 수오일시修悟一時의 무심망조無心忘照 임운적지任運寂知는 또한 판사수辦事修²³⁾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²⁴⁾ 규봉은 중오證悟와 해오解悟는 무이상無二相으로 오悟는 번뇌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요, 수修는 성상性上의 항사공덕恒沙功德에 칭합稱合하여 염념念佛이 닦는 것이다. 돈오점수와 다르지 않지만 다만 무념수·판사수를 일시에 갖춘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생 동안 차츰 훈습하여 나타난 것으로 오직 점漸而이고 돈頓은 없다고 하였다. 즉 그가 시설한 화엄 화의돈化儀頓의 연속보살류緣熟菩薩類에 해당시켰다.

셋째, 선교일치教禪一致를 주장함에 있어서 오수돈점의 수증문에서 본 화엄관이 다르다. 즉

정관은 화엄을 원돈圓頓으로 규정하고, 초심돈구初心頓具를 돈頓, 구덕장엄具德莊嚴을 원圓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화엄 원돈은 해오와 중오 모두에 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종밀은 돈점해증頓漸解證을 『원각경』으로 해설該攝할 뿐만 아니라 화엄을 화의돈화儀頓²⁵⁾과 축기돈逐機頓²⁶⁾으로 파악하고 축기돈을 해오의 돈오점수에 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근 범부의 수증문으로서 축기돈인 돈오점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히 양사兩師의 돈점론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19) 『禪源諸全集都序』(大正藏 48권), pp. 407下~408上,

20) 『節要』, 법륜사 판, p. 48.

『清涼以悟從修 立於漸門 圭峯以修從悟 立於頓門 各有旨趣 兩不相妨』²¹⁾ 위의 책, p.48.

22) 無念修란 자신이 佛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고 나서 닦기 때문에 본래 번뇌가 없어서 끊어도 끊을 것이 없이 닦는 것. 不看不證으로 曠然히 俗道하여 任運修하니 이것이 근본일행상매이다.(性具門의 쪽, 理智現前, 根本智로 뒤임).

23) 판사수란 근본설매로 好아 任運寂知하여 衆行이 일어나는 것으로 悲와 願이 서로 도와서 念念이 백천설매를 수습하여 몸과 腦와 신통과 광명이 점점 自在하여 널리 중생을 이익케하는 것이 노사불과 같다. 이것은 圓滿으로 본래 깨달은바 自心의 진법계를 여의지 않고 圓修하는 까닭이며 無念修를 여의지 않고 辦事修하는 까닭이다.(後得智로 닦는 것, 事智現前, 現行門 쪽)

24) 『節要』, 법륜사 판, p. 53.

지눌은 이 修悟一時가 無念修와 辦事修를 갖추었으나 판사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25) 化儀頓이란 수행자의 근기에 응하지 않고 단박에 깨달음의 내용을 한 번에 설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해서 宿世緣熟上根의 무리를 위해서 性相·事理와 衆生萬惑과 菩薩萬行과 賢聖地位와 諸佛萬德을 일시에 단박 설하여 因이 果海를 포섭하고 初心에 곧 보리를 얻으며, 果가 因源에 사무쳐서 位가 圓滿함에 오직 보살이라 칭한다. 華嚴 一經과 十地 一論, 돈오돈수의 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26) 수행자의 근기에 응해서 단박에 설하는 가르침. 근기가 수승한 사람에게 바로 即性敎를 보여서 돈오케 하는 것. 범부의 上根利智를 만나서 바로 그 법을 教示하면 들으면 곧 改悟해서 완전히 佛果와 같이 된다. 화엄 가운데 초발심시에 곧 아득보리를 얻음과 원각 가운데 觀行에 곧 불도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화엄 일부와 원각경·佛頂經·密嚴經·如來藏經 등 돈오점수 禪門의 直顯心性宗이 여기에 해당된다. “禪語者 調無始迷倒 認此四大爲身 妄想爲心 通認爲我 若遇善友 爲說如上不變隨緣性相體用之義 忽悟靈明知見 是自真心 心本恒寂 無邊無相 即是法身 身心不二 是爲真我 即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也”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기본적 이해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涼疏』 중심으로 독해하기 -

진하 / 대교과(4학년)

목 차

1. 들어가며

2. 독해에 앞선 개론적 이해

2-1. 『화엄경華嚴經』 및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

2-2. 청량장관清涼澄觀과 『화엄경청량소』

3. 『화엄경청량소』를 통한 ‘유심계唯心偈’ 독해

4. 나가며

1. 들어가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7세기 당나라 실차난타의 『80화엄』 제19권 20품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 중 각림覺林보살의 10개 계송 마지막 구문에 등장하며, 이 계송을 통틀어 ‘유심계唯心偈’, ‘유심가唯心歌’라고도 칭한다. 화엄경의 다른 번역본인 5세기 동진 불타라발타라의 『60화엄』에서는 제10권 16품 「야마천궁보살설계품夜摩天宮菩薩說偈品」 중 여래림보살의 계송 10구 마지막에 ‘심조제여래心造諸如來’로 설해진다. 본 글에서는 두 번역본 사이에서 발견되는 계송 간 차이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80화엄』 각림보살의 계송을 청량 장관清涼澄觀(738~839)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抄』¹⁾를 중심으로 독해할 것이다. 본격적인 독해에 앞서 『80화엄』과 「야마궁중계찬품」 및 『청량소』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 징관의 화엄 사상적 관점하에서 「야마궁중계찬품」 각림보살의 전체 계송을 독해하면서 그 안에서 ‘일체유심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읽어볼 것이다.

2. 독해에 앞선 개론적 이해

2-1. 『화엄경華嚴經』 및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

『화엄경華嚴經』의 산스크리트어 원명은 Buddha avatamsaka nama mahavaipulya sutra[◇]고 정식 한문 명칭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

經』이며 크고 넓고 광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살의 만행의 꽃으로 장엄한 경이라 해석된다.『화엄경』은 초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던 기원후 3~4세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 지 14일이 되는 날, 깨달음을 이룬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가운데 인간계와 욕계 4천에서 열리는 법회의 장엄을 담고 있다.『화엄경』 전체 법회에서 설법의 주체는 여래께서 직접 설하신 「아승지품阿僧祇品」과 「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守護光明功德品」 외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등 각 처소의 보살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엄경』의 대의는 조선시대 묵암 최눌이 「화엄품목」에서 밝힌 바로써 만법을 통섭해서 일심을 밝힌다는 '통만법統萬法 명일심明一心'의 한문구로 귀결된다.³⁾ 화엄사상의 요지는 중생이 곧 부처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여래출현出現 혹은 여래성기性起 사상,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시켜나가는 각각의 독자적 가치를 지닌 해탈문으로서 보살행을 이르는 일승보살도一乘菩薩道, 일체 제법이 상입상즉하여 원융무애한 무진연기를 이룬다는 사상으로서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들 수 있다.⁴⁾

『화엄경』의 한역본은 총 3종이 있는데 그중 완역본으로서 현재 60권본과 80권본이 있다. 나

머지 1본은 40권본으로 『60화엄』과 『80화엄』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제8회 「입법계품入法界品」만을 다루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원본으로는 보살의 수행계위를 서술한 제6회 「10지품十地品」과 선재동자의 구도 이야기인 제8회 「입법계품」의 2종만이 전해진다.

『60화엄六十華嚴』은 총 60권으로 이뤄진 경전이다. 동진東晉 시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418년부터 422년까지 번역하였으며 경을 설한 장소로서 7처處, 경을 설하는 모임으로서 8회會 34품의 3만 8천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80화엄八十華嚴』은 총 80권으로, 당 중종 때에 실차난타가 695년부터 699년까지 번역하였다. 7처 9회 39품의 4만 5천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80화엄』의 7처七處 9회九會는 인간세계 설법처인 보리도량菩提道場, 보광명전普光明殿 2곳에서 처음 2회의 법석이 열리고, 부처님의 색신이 그대로 보리수 하에 정좌하신 가운데 도리천忉利天-야마천夜摩天-도솔천兜率天-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욕계 4천에서 순차적으로 4회의 법회가 열린 후 다시 인간세계의 보광명전과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마지막 3회의 법회가 이뤄진 것을 일컫는다.

총 40권으로 이뤄진 『40화엄四十華嚴』은 남인도 오다국烏茶國 국왕이 보내온 산스크리트어

1) 한글 번역서 제목은 『화엄경청량소華體經清蹟』, 이후 『청량소』로 표기

2) 해주 스님, 『화엄의 세계』, 민족사, 2015, p.18

3) 앞의 책, p.17

4) 해주 스님, 앞의 책, pp.17-22 요약

본을 반야삼장般若三藏이 796년부터 798년까지 번역한 본이다. 『40화엄』의 번역 작업 당시 반야 삼장과 오다국왕의 요청으로 청량정관이 참여하였고 번역이 끝난 후 정관은 『40화엄』의 요지를 덕종에게 설하여 청량국사清涼國師라는 호를 하사받았다고 전한다.⁵⁾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화엄경의 4번짜 설법처인 욕계 제2천 야마친궁의 보장엄전에 오르신 후 이어지는 4개 품 중 2번째다. 승야마친궁 품에서 야마친왕이 부처님을 영접한 후 이어지는 야마궁중계찬품은 공덕립보살을 위시한 열 분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만들어 설한 계송들로 구성되어 있다. 열 보살의 명칭은 공덕립, 혜립, 승립, 무외립, 참괴립, 정진립, 력성취립, 견고립, 여래립, 지립이다. 수풀 림林자를 함께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정관은 십행十行의 지위가 견립함을 표하기 위함이며, 행법行法의 종류가 넓고 많은 까닭이며, 모으고 쌓아서 밝게 시작하려는 까닭이며, 빽빽하고 깊어서 틈이 없는 까닭이며, 훤히 트이고 감싸서 잘 비치는 까닭이라고 보았다.⁶⁾ 이 중 9번째로 등장하는 각립보살의 계송을 일컬어 유심계라 하며 이는 『화엄경』의 대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계송으로 꼽혀 왔다.

이후 보살들의 찬탄을 시작으로 공덕립보살이 선사유善思惟삼매에 들었다 깨어나서 보살의

열 가지 행에 대하여 설하는 「십행품十行品」이 이어지며, 열 가지 무진한 행상을 설하는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으로 마무리된다.

2-2. 청량정관清涼澄觀과 『화엄경청량소』

유심계 독해의 기본 척도로 삼고자 하는 논서는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抄』⁷⁾ 중 「야마궁중계찬품」에 대한 부분이다.

『청량소』를 저술한 청량국사 정관의 성씨는 하후夏侯, 자는 대휴大休, 시호는 청량이며,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소홍현 출신이다. 중국 당唐대의 승려로 화엄종 제4조이며 청량산에 주석했다. 화엄종 제3조 현수법장法藏의 제자인 혜원慧苑이 법장과는 차별되는 독자적 교판을 시도하는 부분에 관하여 비판하였다. 또한 교학적으로만 화엄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북종선과 남종선을 모두 배우고 선종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실천적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화엄종의 제4조로 추앙되었다. 내전은 화엄 이외에 법화, 천태학, 우두선, 남종선, 북종선, 삼론三論교학을 배웠으며, 외전은 중국의 구류이학九類異學은 물론 인도의 베다 등을 두루 섭렵했다. 『화엄경소華嚴經

5) 정업, 「중국 화엄사상 연구」, 조계종출판사, 2023, pp.54–55

6) 청량정관, 석반산 역주, 『화엄경청량소』, 담안북스, 2019, p.41

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글 번역서 제목은 「화엄경청량소華嚴經清」, 이후 「청량소」로 표기

疏』(60권)『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90권)『사십
화엄소四十華嚴疏』등 화엄경과 관련한 많은 저
서를 지었으며, 한편 교敦와 선禪의 통로를 제시
하기도 하였고, 실천을 중히 여겨『오온관五蘊
觀』등 여러 저술이 있다. 저서는 총 42종 600여
권 가운데 현재 21종 400여 권이 남아 있다. 정관
의 폭넓고 깊이 있는 사상과 저술은 화엄 사상과
중국 고유 사상과의 접점을 찾는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된다.⁸⁾

『청량소』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으로 이뤄져 있으
며 대소승의 경론뿐만 아니라 유가와 도가 등 중
국사상까지도 망라하는 치밀한 해설로서 가장
뛰어난 화엄경주석서로 꼽히고 있다.『화엄경소
華嚴經疏』의 저술은 정관 45세 때인 당唐 덕종
시기인 784년에 시작하여 787년에 완성된 것으
로 전하며, 788년부터 당시 사찰의 주지였던 현
림 등의 요청으로『화엄경소』를 강의하였다고
한다.

정관의 화엄사상에서 주요한 개념은 '법계관
法界觀'과 '유심관唯心觀'이라 할 수 있다. 정관
에게 있어 법계란 다만 모든 경전의 본체이자 일
체제불이 중독하고 궁구한 바 제법이 의지하는
곳이자 일체중생의 미오迷悟의 근원이다. 여기
서 더 나아가 보살이 보살행을 실현하는 장소이
며 보살행이 발생하는 근본이라 파악하여, 실천

적 측면에서 법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
며 이는 기존의 화엄종 전통과 다른 정관만의 실
천적 면모라 할 수 있다. 또한 정관의 법계 이해
의 근저에는 반야·공사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법계를 깨닫는 것이 곧 일심一心을 깨닫는
것과 같다는 이해로 이어진다.⁹⁾

정관의 유심관을 이해하려면 「야마궁중계찬
품」의 유심계에 대한 정관의 소초를 참고하는 것
이 큰 도움이 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청량소』
를 중심으로 각립보살의 유심계를 독해함으로써
정관의 유심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8) 정엄, 앞의 책, pp.45~50 참고

9) 앞의 책, pp.302~303 요약



더불어 사는 삶의 힘 - 화합과 소통 -

보선 / 대교과(4학년)

매일 반복되는 일정 속에 바쁘게 소임을 살아내며 내 마음자리 하나 찾지 못해 힘겹게 아등바등 살아온 운문사는 나에게 있어 그저 살아내고, 걸어내야 하는 시·공간이었다. 방학 동안에 여행을 떠나듯이 다시 찾은 운문사. 언제 이렇게 보드라운 빛으로 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던가 싶었다.

운문사만큼 도량이 넓고 산세 좋은 경치를 가진 강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호연지기 浩然之氣라 했지요. 이런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학인들은 넉넉하고 너그러운 열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운문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요.



16년 전 주지 소임을 살 때 20년 동안 휴식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운문산을 개방하라는 민원이 쇄도해 운문산 휴식년을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순식간이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문사 대중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모아 2010년 운문산을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자연경관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을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선배 스님들의 운문 도량에 대한 애정과 환경 지킴이를 자처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죄송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오랜 세월 선배 스님들의 손길이 달아 있는 운문 도량과 노고로 지켜낸 자연환경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50년 전 운문사는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비구니 강사 스님을 모시기 쉽지 않아 학인들만 남아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학인 스님 가운데에서 중강을 내어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나도 화엄반 때 중강을 했었지요. 회주 스님께서 치문을 가르치라고 하셔서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뭘 알고 했나 싶어 부끄럽습니다.

당시는 금당에서 다 같이 생활할 때였어요. 어간을 중심으로 상반 하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긴 했지만, 상반은 하반을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한자가 어려워 경전 독송을 잘 하지 못하면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한자 찾는 것을 도와 주는 등 돈독함이 있었어요. 상·하반이었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차서次序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금당에서 같이 수행한 인연으로 서로의 성향을 잘 알게 되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스님께서는 마차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가신 듯 유쾌하고도 상세하게 말씀



하셨다. 강사 스님 없이 학인들만 남아 있었어도 배우고자 했던 열정과 상·하반기 같이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함께 생활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지금의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지금 학인들과 옛날 학인들의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지요. 먹을 것이 없었고 전기가 없었던 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인정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운문사에 밭이 참 많았습니다. 거리가 부족해서 콩을 많이 심었는데 콩밭이 얼마나 넓었던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펼쳐져 있었어요. 콩밭은 삼복더위에 풀을 뽑아야 하는데 밭을 세 번 매면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학인들이 모도 찌고 모내기도 하였는데 거머리가 엄청 많았어요. 모내기를 할 때면 ‘오늘 점심 먹은 거 다 빼앗겼네’ 하면서 거머리를 떼곤 했지요. 가을 되면 나락을 낫으로 베고 탈곡하고 콩 타작하여 가리고… 그래도 울력하다 죽는 법은 없었지요.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했던가. 첨단기술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온 현대사회의 젊은 출가자들이 티비에서나 봤을 법한 옛 어른 스님들의 생활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른 스님들께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아 말이다.

한때는 260여 명이 살던 운문 도량은 지금은 출가자 감소로 인해 주지 스님이 사셨던 50여 년 전과 같은 상황이다. 주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른 스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

탕으로 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전체 학인 수가 50여 명이었어요. 그중에는 꾀를 부리는 사람, 아픈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하는 사람, 모난 사람, 둥근 사람 등 다양하게 섞여 있었지요, 그러나 즐겁게 화합하면서 더불어 사는 습관을 익혔기 때문에 그 많던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해낼 수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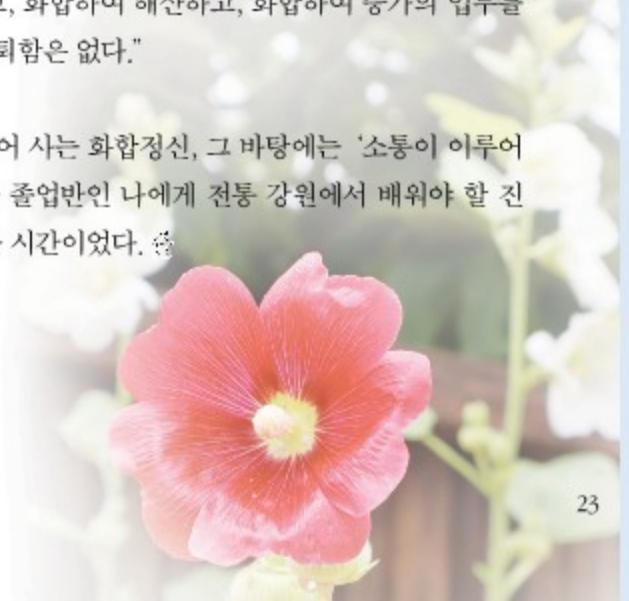
지금 운문사에는 법랍 70여 년, 세남 90세가 넘으신 회주 스님부터 출가한 지 1년, 세남 20대 초반인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같은 반에서도 세남이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간격 속에서도 승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 말, 뜻, 견해, 계행, 나눔으로 화합하는 육화六和의 덕목이 이루어지고 계승되어 왔기 때문이라. 스님께서는 대중의 화합과 더불어 개인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셨다.

강원 생활은 경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각각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출가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용과 뱀이 같이 산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각각 쓰임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다 보면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왓장 등이 다 필요한 것처럼요. 이 세상 만물에는 다 각각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거랍니다. 다 스승 아닌 것이 없어요.

주지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대중 화합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우선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지로 부임하시고 곧바로 학인 스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다. 학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셨고 지금의 1학년 스님들이 4학년인 우리와는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보는 한, 너희들에게 번창함이 예견될 뿐 쇠퇴함은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더불어 사는 화합정신, 그 바탕에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지 스님의 강렬한 메시지는 졸업반인 나에게 전통 강원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허공은 벼락에 멍들지 않는다

명주 / 사미니과(1학년)

운문사 하늘 위로는 가끔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도량 내의 어디론가 향하고 있
거나, 울력이 있어 밖에서 풀을 뽑고 있거나
할 때에 종종 그 모습을 보지요. 사실 하늘을 쳐
다보고 곧바로 비행기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공기
가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고개
를 들고, 소리보다 한참 앞에서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작
은 비행기의 형체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잠
시 바라보고 있으면 학생 시절에 배운 짧은 과학 상식이 떠오
릅니다. 번개가 치고 나서, 천둥소리가 언제쯤 나는지 계산해보
면 그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번개가 어디쯤에서 쳤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감동시킨 것은 보이는
형체보다 소리는 천천히 뒤따라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쩐지 지금 학인
인 저의 삶이 겹쳐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삼화_1학년 인성

저는 늘 걱정이 앞선 사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출가를 하기 전에도, 강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치문
반만이 남아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 여름방학에도 걱정이 먼저 벼락처럼 저를
쳐서 명들게 했습니다. 금당 당주를 살며 생기는 잣은 실수 때문에 도반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속에서 뭉계뭉계 커져서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 도반 스님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동안 그 한

마디가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만이 적나라하게 보였고, 끊임없이 저에게 실망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도반들에 비해 계으르기만 하고, 선한 마음을 갖지도 않은 제가 무엇을 잘한다고 말하며 노력하고 있단 말일까요. '잘하려고 애쓴다니,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고 야망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모두에게 외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며칠을 앓다가, 도반들이 모두 저녁예불을 하러 가고 혼자 지대방에 남게 되자 잠시 저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출가 발심을 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그로 인해 출가하기로 한 저의 결심이 마치 천동처럼 별안간 콩, 하고 떨어져 가슴 속에 용어리진 무엇인가를 놓여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과 불법만을 믿고 의지하자 했던 그 다짐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고 나니 '죽지 않고 살아서 스님 이 되었는데, 무엇을 더 욕심내겠는가!' 하는 마음만이 남아 있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크고 무거운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간의 삶은 내가 남보다 잘나야 하는 곳입니다. 출가하기 전, 남과 저를 비교하는 일을 습으로 삼고 살았던 지라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타인의 모습을 줄자로 삼아 이리저리 재단하고선 '남보다 잘나지 않은 나'를 모자라고 못났다며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고 짐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손아귀에 꼬옥 쥐고 있던 '나'를 아주 조금이나마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봄방학 동안 저의 마음은 벼락과 천둥이 치는 폭풍 속을 항해하고 온 듯합니다. 허공은 벼락에 멍들지 않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허공은 넓기가 무량해서 번개가 아무리 친다 한들 다치지 않고, 바다에는 물이 한량없어서 비가 내린다 한들 젖을 일이 없겠지요. 비록 아직은 허공과 같은 경지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겸손해지고 겸허해진 저를 느끼며 가슴을 쓸어봅니다. 언젠가 저도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



하운우인
夏雲雨人

시원하게 적셔주는
운문의 여름비

편집부



여름이면 어김없이 능소화 꽃비가 내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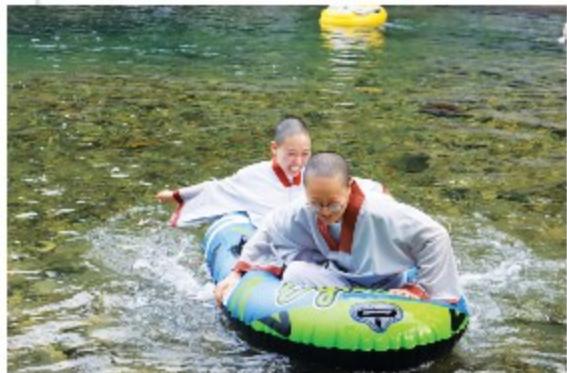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의 연등행렬



기다리던 단오 산행! 주먹밥 만드는 치문반 스님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물놀이 삼매에 풍덩~



연꽃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음이로다



국적은 달라도 우린 하나입니다



동련 제74차 전국지도자연수 – 사교반 스님들의 마음 모으기



운문사의 7월은 여름불교학교 준비로 한창입니다



김포 바닷가에서 긴박했던 순간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현 / 사집과(2학년)

저의 발심 계기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부터 어깨탈골로 아팠고 일 년 중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심한 통증으로 분한 마음에 밥을 노려보며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즉석에서 한입 크기의 주먹밥을 싸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늘 화가 났습니다. ‘내 육신을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나?’ 하며 지금의 육신에서 늘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힘차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힘센 독수리로 태어나고 싶었죠. 하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동물의 세계>를 보던 중에 독수리가 살아 있는 생명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상상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나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작은 동물을 잡아 피냄새를 맡으면서 삼켜야 하는 과정을 말이죠. 너무 소름끼치고 토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모르지만, 육신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안개가 친 듯 계속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메라의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사진 현상하는 것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사진을 인화하던 어느 날, 수은이 함유된 정착액이 오래되어 산화된 줄 모르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들숨 한 번으로 호흡은 끊어졌고, 의식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육신을 벗어날 좋은 기회구나 생각했고, 삶에 미련 같은 것은 없었기에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고요하고 침착한 내 안의 이 존재는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영화를 보듯 사람들의 얼굴들이 세세하고 빠르게 보였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하물며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한참을 보던 중에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도 못 만나고, 과제를 풀지 못하고 이생을 미감하는구나, 어쩔 도리가 없네. 고통스러운 육신을 빨리 버리자. 그런데 슬퍼할 부모 형제들이 맘에 걸리는군…’ 순간 멀리 작고 밝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 덩

이리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돌아온 걸까? 도대체 어떤 힘이 작동하는 건가? 의구심이 일어 났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육신의 허망함을 느끼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뒤 2~3일 지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몸은 양상한 나뭇가지처럼 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쇠약해질 때 지인이 절에 가서 불보살님 앞에 간절히 108배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았지만 새벽에 눈이 떠지고 어머니가 쓰시던 108염주를 손에 들고 절에 갔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없어서 염주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염주를 내려두고 예불이 끝나는 시간까지 천천히 같은 속도로 절을 했습니다. 좌복 없이 마루에서 절을 했기에 양쪽 무릎엔 피와 청바지가 엉겨 붙어서 무척 아팠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서 만난 아침 햇살의 청명함과 싱그러운 산의 공기를 마시니 몸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둘러 메고 산사를 찾았더니 중에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온전히 나만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관념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과 수많은 이들의 노고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에 대한 불만으로 살아온 것에 참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광반조하기 위해 《선가귀감》의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알고 있는가?

사대의 추신醜身이 순간순간 늙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인명人命이 숨 한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앓고 눔고 편할 때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팔풍八風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상상相相 속에 살고 있는 나

혜성 / 사교과(3학년)



나아님
어쩔?

중생
想

想

어린 시절 나는 부처님과 은사 스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불법문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출가 후 대중처소에서의 행자 생활과 운문사 강원에서의 각종 습의를 익히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인생의 전부를 절에서 보낸 나에게 스님으로서 앓고 눕고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렇지 못했던 탓일까, 대중생활을 거듭할수록 가슴 속 어딘가 이름 모를 답답함은 깊어만 갔다.

인想



내가
참아준다
想

운문사 입방 첫날. 수많은 대중 스님에 당황도 잠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실수 연발인 서로를 보듬어 주며 철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새 사교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운문에 물들이 여유가 생겼음에도 밖으로만 시선을 두었던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억눌려 있었던 업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작은 도반을 위한 표현이었을 내 말들은 어느덧 화살이 되어버렸고, 도반을 위한 마음이었을 내 행동들은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나라는 상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등의 수많은 번뇌는 그렇게 나의 지난 사십 여름철을 길고도 깊은 고뇌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혼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이런 나를 안타까워한 한 도반 스님이 넘지시 말했다.

“혜성 스님! 다른 사람 부처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혜성 스님이 부처님 되어 보는 건 어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저릿하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렇다. 사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괴로움은 밖을 향한 불만족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기준엔 항상 ‘늘 최선을 다하는 혜성’이라는 상이 있었다. 그리고 또 화를 참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두 번째 화살을 일부러 맞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무자비함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제 스스로 빚어낸 상상相の 바다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희생
想

수자
想

‘나는 무엇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걸까? 이제까지 내가 해 왔던 노력은 과연 바른 노력이었나?’
길고 깊은 고뇌 끝에 나의 노력은 시작부터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이르자, 나와 남을 함께 태웠던 분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되어 얼룩진 마음을 씻어내었다. 그리고 떠오른 어른 스님께서 주신 기억 속 짧은 편지.

“매일 매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삶을 만드는 방법이다.
나의 바른 모습은 나를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남도 바른 삶으로 이끌게 된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의 핵심이다.”

나만을 위한 노력이 아닌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올바른 노력을 지어야지. 밖으로만 맴도는 내 마음을 낚아채 더 이상은 나의 상상들에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 귀한 오늘을 살아내야지… 그려다 보면 마음까지도 출가한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과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수 없는 다짐들로 두 손 모아 부처님전에 발원해본다.

스님
想

아
想

星見想

나
반듯
想



삼화_ 3학년 해견

대승의 보살도를 향한 발심의 위대함

안성두 /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위기의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불교도에게는 무엇보다 단자화된 개인적 삶의 추구와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급속한 해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근저에 보이는 증상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욕망일 것이다.

많은 서구학자들은 현대의 위기 앞에서 다시금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런 윤리적 태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게는 윤리적 성찰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에 회자되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앞부분에서 예시된 여러 사고실험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인상은 그가 생각하는 정의의 맥락에서 자기희생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폭주하는 전차’의 사례에서 여러 사고실험을 하지만, 여기서 자기희생을 통한 딜레마의 해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자기희생이 이미 정의나 윤리의 범위를 넘어선 성스러움의 영역이라고 보아서 그렇겠지만, 과연 이 세상에서 자기희생 없이 윤리적 딜레마가 해결될 길은 과연 있는지의 의문은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현대의 위기도 단지 윤리적 각성이나 이에 의거한 생활태도의 변화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

록 윤리적 각성이 매우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윤리적 행위는 강력한 정신적 깨어남의 경험 없이는 현대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출발점으로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교사상 내에서 윤리적 행위를 지향하면서도 깨어남의 경험을 살하는 가르침에 주목하게 된다. 현대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출발점으로서 윤리적 태도와 정신적 통찰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정신적 윤리학이 요청된다고 할 때, 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보살도의 이념이라고 믿는다.

'보살' 관념은 대승에 의해 창안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본생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석가모니 봇다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그러나 기원 전후에 편찬되기 시작했던 대승경전에서 보살은 점차 진실한 대승수행자를 나타내는 일반명사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보살행의 목표와 실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요약되며, 여기서 상구보리가 봇다의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自利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하화중생은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의 이타利他행을 나타낸다.

대승불교에서 처음으로 보살윤리를 체계적으로 설한 『보살지』는 일체계一切戒 항목에서 보살의 윤리에 율의계律儀戒뿐 아니라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를 포함시키고 있다. 율의계가 보살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의 항목들을 포함하는 반면에 섭선법계는 율의계를 받은 후에 대보리를 위하여 신체와 말을 통해 모든 선을 적집하는 것으로 선법을 획득하고 보호하고 중대시키는 것이며, 요익중생계는 실질적으로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의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설해진다. 이에 따르면 대승보살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란 소극적 의미에서 단지 승원전통에서 요구되는 계율의 준수나 선법의 적집뿐 아니라 보다 넓은 실존적인 상황에서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이타행의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승의 위대성은 이러한 보살행의 실천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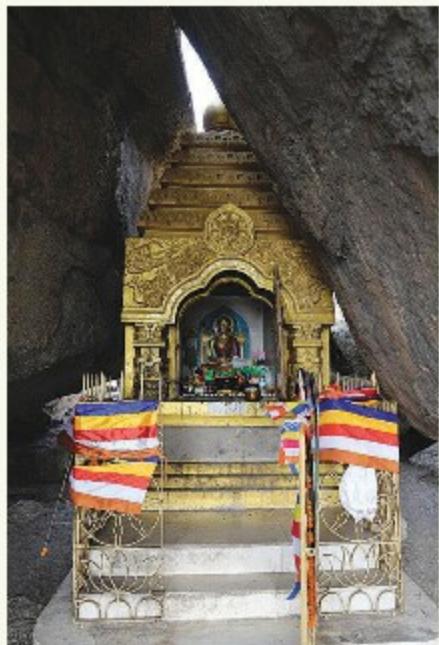
그런데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두 가지 보살행의 목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상구보리가 아니라 하화중생에 중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완전한 깨달음이 보살행의 목표로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심의 실천 없이는 사실상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식학파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무착無著(약 4세기) 보살의 일화이다.



무착보살상, 1208 CE, 일본 고후쿠지

그는 출가한 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우연히 읽은 반야경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륵보살을 친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동굴에서 12년의 수행을 했다. 하지만 미륵보살을 친견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개를 보았다. 상처에 들끓는 구더기를 보면서 갑자기 그에게 대비심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그가 개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면 거기에 있는 구더기를 제거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들도 살아 있는 중생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그는 자기의 허벅지살을 베어 거기에 구더기를 자신의 혀를 사용해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에 미륵보살이 출현하시면서, 무착이 동굴에 들어간 때부터 그의 곁에 있었지만 무착은 대비심의 실천에 의해 비로소 그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무착보살의 일화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보살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본생담』의 모델에 따라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자기 회생 없이 먹고 먹히는 욕계의 세계에서 과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는 보살로서의 발심은 바로 대비심에서 나온다는 『보살지』의 설명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무착보살이 수행했던
인도 부다가야 계족산의 동굴

이렇게 수행자가 대승의 보살도를 걸어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발심發心이다. 발심 또는 발보리심이란 대승의 보살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승려나 재가불자가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면은 물론 인지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깨달음과 일체 중생의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전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이를 체화하려는 실존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발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보살행을 굳건히 실천하고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심은 바로 보살행의 토대이다.

『화엄경』의 ‘초발심시初發心時 변성정각便成正覺’도 바로 이런 발심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보살행의 근거이자 토대라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나는 우리의 승가교육이나 재가불자의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보살행의 토대가 되는 발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각하는 데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심 없이, 즉 대비심이라는 토대 없이 완전한 깨달음은 결

코 가능하지 않으며, 설사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고 해도 곧 사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비심은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민이지만, 최고의 대비심은 그들을 자신이 원하듯이 위없는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열망이다. 대승은 이를 원보리심願菩提心이라 부른다. 원보리심의 계발을 위해 산티데바(寂天, 7세기)는 (1) 자·타의 평등성과 (2) 자·타의 교환을 명상하라고 권한다. (1)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황금률에 입각해서 자신만을 위한 행복, 에고의식에 의거한 행복은 가능하지 않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 경주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아담 스미스가 말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을 이를까? 아니면 흡스가 말하듯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이기적 유전자'의 전쟁터가 될까? 어느 경우든지 여기에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평화와 적정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유식학파는 자타의 완전한 평등성의 인식, 즉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중득하기 위해서는 심충적인 에고의식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평등성지는 염오된 자아의식인 염오의 染汚意의 소멸을 통해 나타나기에 표충적인 자아의식은 물론 심충적인 차원의 '자아' 의식을 제거할 때, 완전한 자타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유식은 이를 위한 특별한 수행법을 설하지만, 이는 바로 대승에서 설하는 법무아法無我的 인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티데바는 자·타의 평등성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인 보살행의 적극적 실천을 요구한다. 그것이 두 번째 자타의 교환이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고통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티베트 불교에서 보통 통렌(唵欽陀, tonglen) 수행이라고 설해지는데, 즉 자신의 행복은 버리고(tong) 타인들의 고통을 취한다(len)는 의미이다. 자신의 행복을 버릴 때 역설적으로 가장 행복해진다는 이 원리를 산티데바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비밀이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이들에게 산티데바의 이런 두 가지 실천이 처음부터 행해지기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부인 한에서 자연적 태도 속에서 나를 타인과 구별하면서, 자신의 보존과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 깊은 에고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명상법이 권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적대자들에 대해 그들이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다고 관상하는 방식 등이다. 경전은 이런 명상이 우리가 중오하는 적에 대해 깊은 연민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행자가 특히 불상이나 존경하는 스승 앞에서 '타인의 악행은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선행은 타

인의 행복으로 익어가기를! 하고 기원한다면, 보리심이 자라나게 되고 깊이 마음에 뿌리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명상을 진실하게 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징힘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몸에 물집이 생긴다든가 또는 장애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따위이다.

『보살지』는 발심한 이후에 비로소 수행자는 '보살'이라는 칭호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유식문현이 보살행이 순결택분順決擇分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발심이 굳건해지고 원보리심의 작용도 충분히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은 실제로 발심과 정원의 성취 여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갖춘 후에 자리와 이타의 종합적 실천, 진실의 이해, 최고의 보리를 즐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심은 보살에게 일종의 '관정의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발심이 확고해졌을 때 보살은 더 이상 후퇴함이 없이 비로소 바라밀의 실천과 같은 대승불교의 참다운 실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안성득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인도학과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금강대 불교학부,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고전티벳어 문법」,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불교경전은 어떻게 편찬되었는가(공저)」, 「대승불교의 보살(편저)」, 「티벳의 문화」 등이 있다.



운하항복 진심 云何降伏 噴心

해탈향 / 사교과(3학년)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해탈향입니다. 저는 오늘 ‘운하항복 云何降伏 진심 噴心’을 주제로 법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강경」에 의하면 무주상 無住相, 즉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심을 다스려야 합니까?

대중 스님들, 진심을 아십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성낼 진噴과 마음 심心을 쓰며 삼독심의 하나이고, 화를 잘 내는 마음, 지혜를 어둡게 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번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하게 여겨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의 출가는 우연히 화엄산림법회를 가게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절에 가면 보이는 부처님과 보살님, 기도하시는 스님들, 천수경과 반야심경, 그리고 보시한다고 하면 과일과 떡, 나물밖에 몰랐던 저에게 그 법회는 머리에 천둥이 치는 별나고 별나던 신세계였습니다. 그땐 한자로 된 그 문장이 실시간으로 뜻이 여러 번 바뀐 것이 너무 신기했고 알면 알수록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자 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동경만 했었는지 행자 때 갑자기 웬 면접과 시험이 우수수 쏟아지고 약간의 고통과 통곡이 있었지만 무난히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각이었던지 어느 날부터 인가 유독 자꾸 눈에 띠는 것이 생겨버렸고, 계속 떨쳐보려고 절도 열심히 하고 마주치



지 않으면 되겠지 했지만 아견我見 인견人見 중생견衆生見 수자견壽者見,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견해와 관념에 빠지며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미움이 생기고 우울한 상태로 빠지는 그 지옥에서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법회에서 만났던 어른 스님 말씀이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해탈향 행자님, 내생에 뱀으로 태어나기 싫으면 화를 내지 말고 참아라. 딴 데는 신경쓰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저는 수없이 그 말을 되새겨 보았지만 그때는 감정이 깊게 우울한 상태여서 매일 매일 저 자신을 관찰하며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못 본 척 안 보고 말 안 하면 그만이겠지, 했으나 시간이 흘러 치문 시절이 지나고 사집이 왔을 때 그 우울함은 묵묵히 쌓여 스트레스의 산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쾅 쾅 터지며 화를 뿜뿜 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버린 집착은 버려야 하는데,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어 쉴 새 없이 불어나 멈출 줄 몰랐고, 시비가 생기면 그저 그대로 부딪히다가 결국엔 제 몸에 상처를 남겨버렸습니다.

그 당시 교수 스님께서 ‘법당을 안 가면 소 한 마리 앓은 격이다’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난 아픈데, 절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신심은 바닥이 나버렸고, 결국 그 말들은 돌고 돌아 송곳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권하는 대로 마음을 사유하기도 하고, 걸음 걸음마다 진언을 독송하기도 하며, 평평 울어보기도 했지만 한번 시작된 그 불꽃은 확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집반 겨울철에 작은부전 소임을 맡으면서, ‘어차피 2년이 더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것은 참는 것인 인욕과 잘해주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不二’, 즉 너와 나는 둘이 야님을 되새기며,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공통점을 하나 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제4장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의 무주無住, 즉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바라는 바가 없고, 의도하는 바가 없으며 집착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옹무소주應無所住 행어보시行於布施

소위부주색보시所謂不住色布施 부주성향미촉법보시不住聲香味觸法布施

옹여시보시應如是布施 부주어상不住於相

마땅히 응당 둉 빈 마음이 되어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나니,
이른바 색에 얹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냄새·맛·감촉·법에 얹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며, 그 어떤 상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보
시로 그 경계에 따라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보시에는 재물로 인천의 복덕을 구하는 재보시財布施, 불법을 공부하여 베푸는 법
보시法布施, 다른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좋은 모습이나 인상, 좋은 말로 상대를 편안
하게 해주는 무외보시無畏布施가 있습니다. 한편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보시인 무재칠
시無財七施에는 늘 편안한 얼굴로 대하는 화안시和顏施,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하는 자
안시慈眼施, 악담은 그만, 말로 희망을 불어넣는 애어시愛語施, 지극하게 진심으로 상
대를 대하는 심시心施, 신체로써 남을 돋는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床座施,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사시房舍施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시비가 일어나면 바로 사과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며, 나를 멈추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하루 달라진
저를 느껴 갑니다.

대중 스님들, 바위가 누르고 있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잡초가 자라나듯이, 번뇌의
스위치는 생각, 감정, 심리작용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우리 가까이
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다 같이 몸과 마음으로 수행하는 보시행을 실천합시다.

마지막으로 신라 선덕여왕 시대 부설거사의 임종계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목무소견무문별 目無所見無分別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이 없고
이청무성절시비 耳聽無聲絕是非 귀에 듣는 소리 없으니 시비가 끊겼네
분별시비도방하 分別是非都放下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단간심불자귀의 但看心佛自歸依 다만 본성을 보고 스스로 귀의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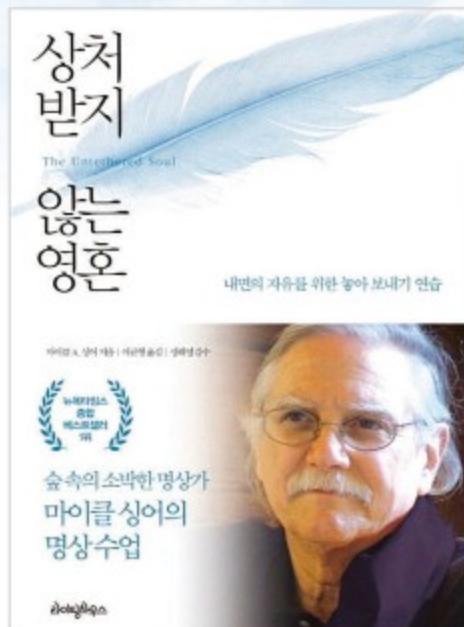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상처받지 않는 영혼

태감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미국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한국을 포함한 십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된 책이다.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자신을 방치했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의 길을 안내하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마음 사용 설명서 또는 자기계발서'라는 평을 받는다. 이 시대의 뛰어난 성취자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명상을 꼽았을 만큼 내면에 관한 관심이 높은 오늘날 사회의 흐름도 이 책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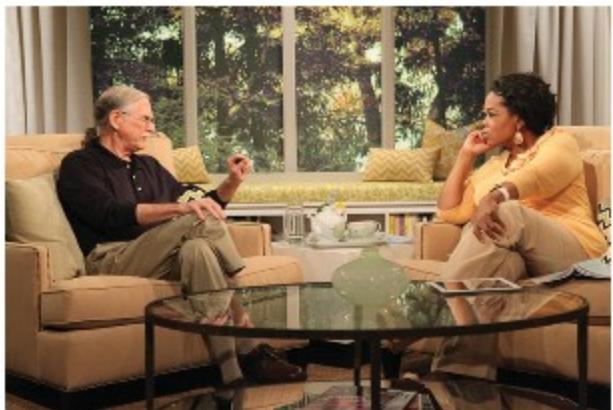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싱어Michael A. Singer는 미국의 저술가이자 정신 과학자, 영성 spirituality 연구가이다. 1947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대 초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에도 정신 과학, 철학, 신화학, 영성 분야에서 공부했으며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깊은 내면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후 은둔하여 요가와 명상에 몰두하며 1975년에 명상 요가 센터 Temple of the Universe를 세우고 내적 평화에 대한 체험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 미술, 교육, 보건,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크게 기여하며 동서양 사상의 통합에 관련된 『진리의 탐구』, 『우주적 법칙에 관한 세 개의 에세이: 카르마, 의지, 사랑』의 두 권의 저서도 남겼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싫어해서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그는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2012년 토크쇼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다루며 내면의 평화와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마이클 싱어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도구와 기술들

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가르침이 멋진 이유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보고 다가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각자의 내면으로 돌리게 한 이 책은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을 해부하고, 동서양의 영적 전통과 지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음의 일상적 지껄임에 대한 관찰을 시작으로 깊은 영적 경지로 향하는 내면 여행을 설명하고 프로이트의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인도철학, 노자의 도덕경, 부처와 예수 등의 도움을 받아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삶을 놓고 벌이는 마음의 온갖 소동들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일상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각을 분리 시켜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휘말리거나 그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판단이나 애착 없이 경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자신의 일부라고 한다. 현재의 순간을 살기 위해 과거의 상처와 불만을 벼



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감정과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부여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이러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큰 기쁨과 성취감을 선사한다고 한다.

저자는 우리의 내면적 경험에 대해 관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하는 것, 내면의 평화와 안락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마음속에서 늘 지껄이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어떤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라고 한다.

반일 영혼의 자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결국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멀찍이 떼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신이 맑을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변덕이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명상, 시각화, 마음챙김 연습 등 인식으로부터의 분리를 발달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이 영적 여정에서 얻은 개인적인 일화와 통찰을 공유한 것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만들어 간다. ☺

定



대결 / 대교과(4학년)

비구니 승단의 복원을 위해

'복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을 뜻한다. 비구니 승단을 복원한다고 할 때, 이 '원래의 상태'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준은 어느 곳, 어느 때에서 찾을 것이며, 찾는 이는 누구여야 하는가?



코로나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운문사는 꾸준히 외빈을 맞이하는 중이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빛깔의 가사를 두른 스님들이다. 세계적 불교 NGO 연합체인 국제참여불교연대(INEB)가 매년 정토회와 연계해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운문사가 포함된 덕이다. 여성 출가자들이 한데 모여서 수행하는 모습 자체가 다른 문화권의 수행자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는 까닭이리라 짐작해 본다. 올해 6월에는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등지의 스님들과 운문사 대중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에서 출가 여성의 교육 및 수계 과정이 어떠한지를 묻는 스님들의 모습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티베트 등 의 국가는 비구니 계맥이 끊어진 채로 불교가 전래되었다. 1996년 이후 템라와다 전통의 비구니 승단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한국, 대만 등 비구니 계맥이 살아 있는 국가 스님들의 협조 하에 남방의 사미니들이 구족계를 받는 수계식이 열려 왔다. 그러나 이후 전해진 소식들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수계식 직후 가사 반납과 교단 해체를 요구받는 등 남방의 여성 출가자들은 아직도 원로 비구 승단의 반대,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부채, 배척에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구니 제도의 역사적 전거와 전통의 부채가 언급되고는 한다. 하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던 부처님의 일화보다 결정적인 전거가 또 있을까. 『테리가타(장로니

게)』의 깨달음을 이룬 비구니들의 절절한 수행담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그 외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말미암아 거론되는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와 기록,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밀관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날라요 스님, 나오미 애플턴, 앤리스 콜레트 등 다양한 전승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한 선지자들의 학술활동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비구니 승가 복원에 대한 물음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지, 실현 가능한지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 마땅한 존중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한국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구니 승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방 국가들에 이미 하나의 롤모델로 비추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이 지위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전통을 잊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비구니 승단이 확립될 수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며 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가장 최근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부탄은 비구니 재단이 설립되었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작년 10월 첫 비구니 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스리랑카는 비구니 스님들이 이미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은 나머지 테라와다 국가에서 비구니 승단 복원을 위해 수행과 연구 측면에서 남방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살림을 점검하여 한국 불교계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교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불평등 종식을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비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다. 가사노동 분담, 임금 및 소득 격차, 국회의원과 고위 및 관리직 여성 비율 지표에서 드러나듯 가정에서부터 직장,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 만연한 성평등의 부재는 한국이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불교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여성 불자들, 비구니 스님들이 발언권을 제한받고 사찰과 종단의 대소사에서 눈에 띄게 배제되는 이 기이하고도 낯부끄러운 현상을 모두가 하루빨리 자각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시대의 망령에 불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권·ジェ너리티의식이 경충 성장해 있는 젊은 세대가,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사카디타 세계대회는 30여 개국 출신의 여성 불자들, 출가 수행자들이 한데 모여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연대와 지원으로 비구니 승단이 속히 복원되기를 염원하며, 비구니 승가와 여성 불자들이 확고한 입지로 이 불국토를 장엄할 미래를 기다린다. ☩

운문소식



▲ 개학공사



▲ 정토회 방문



▲ 모실



▲ 여름불교학교



▲ 제18차 사카디타 세계대회

- 6월 7일 개학일입니다.
- 6월 8일 청풍료에서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6월 9일 ~10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동련 연수 제74차 전국지도자연수회에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6월 14일 대웅전에서 故 운산 학장 스님의 49재가 있었습니다.
- 6월 16일 정토회에서 국제참여불교연대 소속 동남아 스님들과 불교활동가들이 운문사를 방문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17일 청풍료에서 전 범여사승가대학 강주 용학 스님의 토요『화엄경』특강(총 6회)이 시작되었습니다.
- 6월 18일 대웅전에서 영덕 학장 스님을 단주로 결계포살이 있었습니다.
- 6월 20일 제석사 주최 열린 제4회 원효 학술대회에 화엄반 대겸, 영원 스님이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6월 22일 단오산행이 있었습니다. 화엄반은 경주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6월 23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차 사카디타 세계대회에 어른 스님 및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진광 강주 스님이 회주 스님의 격려사를 대독했습니다.
- 6월 30일 청풍료에서 여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7월 8일 청풍료에서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7월 15일 ~17일 청풍료에서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동현 스님의 초기불교 특강이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 7월 29일 ~30일 1박 2일 동안 제43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부따란 어드벤처-운문템플 대모험 시대로'가 열렸습니다.
- 7월 31일 청풍료에서 자자 및 방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8월 1일 하기 방학일입니다. 방학기간은 38일(가을철 개학 9월 7일)입니다.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조서영 • 윤금자 • 배종옥 • 하옥희 • 김성옥
- 박문주 • 이정숙 • 대성사 현정 스님 • 배창운
- 문광 스님 속가 부모님 • 조서영 • 황병석 • 최희영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밤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010-7403-7118

①이전 주소, ②바뀐 주소, ③수령인, ④부수



금강경 독송 기도

운문사는 하안거 기간 동안 명부전에서 각각등 복위로 영가님을 모시고
매일『금강경』과 법성계, 무상계 독송으로 법공양을 올린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제성변시광장설 溪聲便是廣長舌
산색기비청정신 山色豈非清淨身
야래팔만사천계 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 他日如何舉似人

제곡 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 빛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찬밤의 팔만사천 계송을
다른 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러 줄까

- 소동파의 오도송悟道頌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어름호·통권 제164호·2023년 7월 3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맹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대겸 / 편집위원·대겸, 혜건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대겸 / 편집디자인·디자인 마루 (053)426-3396